

בֵּית ספרים (책의 집)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

송민원 씀, 아드벤트



예수님, 생명으로 가는 길과 멸망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사람들이 옳다고 믿는 길로 가지 마세요.
넓고 편한 쉬운 길에 현혹되지 마세요.
다들 가는 길이니 관찮을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좁고
그 문으로 인도하는 길도 매우 험소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그런 길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나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 위에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가 지은 집은 비와 바람과 홍수에도 끄떡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도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격입니다.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고
바람이 조금만 심하게 부는 날이면
그런 집은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제51권 26호

2025년 6월 29일(성령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

제109회 총회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안산교회는 1974년 4월 여천군 월내리에서 설립 후 안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앞선 세대를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꿈꾸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여수시 안산1길 172-10 59662

교회 (061) 691-7315 Fax (061) 691-7320 목양실 (070) 4292-8377

† 안산가족 소식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교회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 **주일 낮 예배:**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예배드린 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 **찬양예배:** 매월 첫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수요기도회:** 매일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교재로 활용합니다.
- **새벽기도회:** 매일성경 성서일과표를 활용하여 주 4회(화-금) 모입니다.
- **일상기도:** 다락방과 중보기도 제목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1. **예배 ① 주일예배:** 오늘은 성령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 주일 설교 요약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모임 ① 정기 제직회:** 다음 주일 낮 예배 후, 본당
3. **다락방 배부:** 7-8월호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4. 다음 주일은 ‘이사줄기’ 헌금 주일입니다.
5. **중보기도 제목**
 - 코로나19 극복과 교훈(공존, 공생)을 잊지 않기를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한반도의 평화와 빈부격차, 이념 및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 동역자들(방글라데시, 필리핀,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을 위하여
 - 노년의 평화와 고난 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 신앙실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성령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는 바람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시원한 바람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예배 및 자치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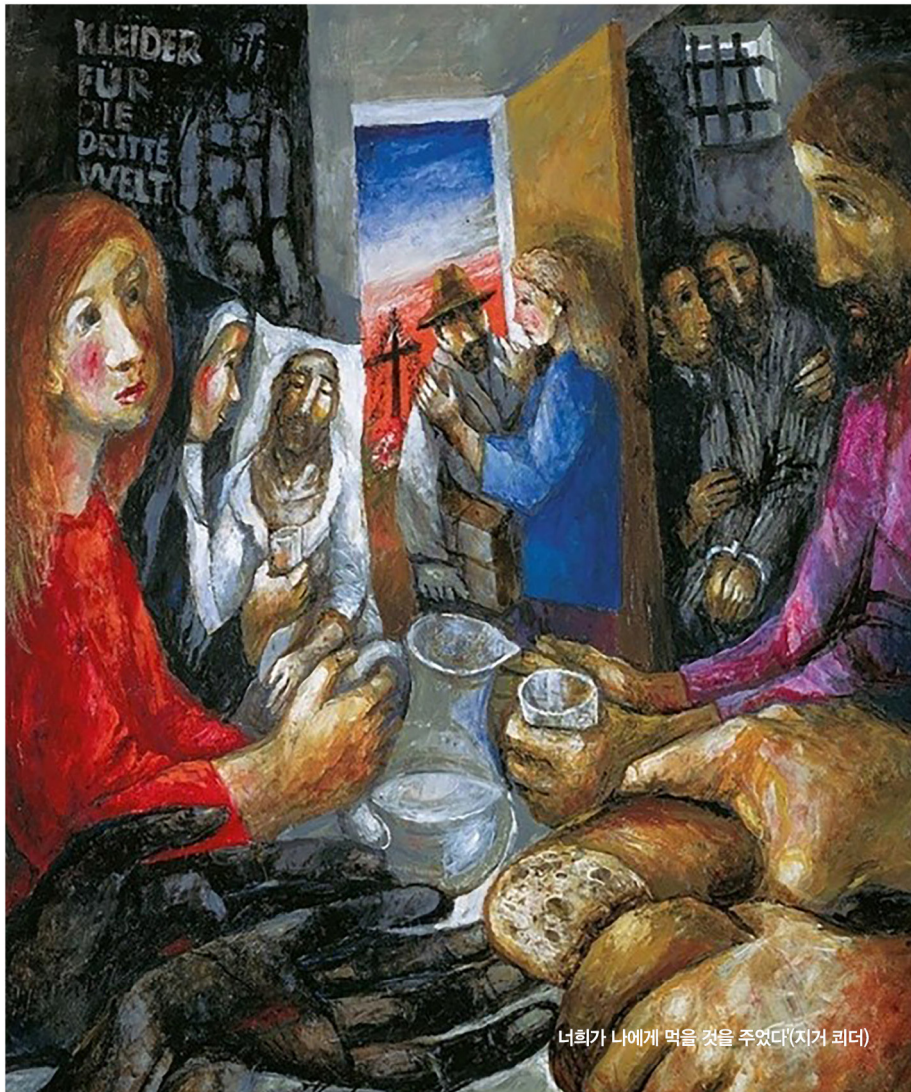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선 교회	연 령
주일낮예배	오 전 11 시	본 당	아 브 라 함	남 성 교 우
수요기도회	오 후 7 시	소 예 배 실	에 스 더	61-70세 여성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소 예 배 실	드 보 라	51-60세 여성
아동부예배	오 전 9 시	소 예 배 실	마 리 아	41-50세 여성
청소년부예배	오 전 9 시	청소년부실	한 나	40세까지 여성
YouTube 채널: 여수안산교회 온라인 헌금계좌: 신한 061-691-7315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 산 교 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지거 쿼터)

주 일 예 배 (성령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


주일 오전 11시	인도 : 송 혁 목사
경배와 찬양	함 께
* 입 레 송	주 찬양
* 예배의 부름	요한복음 4:23-24
* 송영과 기원	반주, 인도자
* 영 광 송	446장(3절 후, 간주)
함께 드리는 기도	함 께
참회의 침묵기도	함 께
위로와 용서의 말씀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성 시 교 독	시편 16편(성서일과표를 보며)
감 사 찬 송	401장(2절 후, 간주)
기 도	함 께
* 성 경 봉 독	갈라디아서 5.1, 25(신약 307쪽)
찬 양	빈 들에 마른 풀같이
말 씬 선 포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단의 찬송과 기도	488장(3절 후, 간주)
봉 헌	함 께
성도의 교제	함 께
* 교제의 찬양	382장(3절)
* 축 도	송 혁 목사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음 주 기도 - 김병곤 장로

- * 7월 안내위원 : 배순희, 배유희, 김수영, 서영숙
- * 7월 헌금위원 : 이상철
- * 7월 주방봉사 : 2, 5구역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십시오!
그 누구도 다시 여러분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1, 25/메시지성서)

수 요 기 도 회

오후 7시	인도 : 송 혁 목사
찬 양	함 께
기 도	김현아 집사
성 경 봉 독	역대상 29.10-19(구약 654쪽)
말씀선포와 기도	제가 준비한 것으로
축 도	송 혁 목사


다음 주 기도 - 박종애 권사

일 상 기 도 (매일성경)

날짜(요일)	목상 본문	3일(목)	요한계시록 2.1-7
30일(월)	역대상 29.20-30	4일(금)	요한계시록 2.8-17
1일(화)	요한계시록 1.1-8	5일(토)	요한계시록 2.18-29
2일(수)	요한계시록 1.9-20	6일(주일)	요한계시록 3.1-13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수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지 난 주 일 말 씀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이사야 65.1-9)

[성서일과표/이사야 65.1-9, 시편 22.19-28, 갈라디아서 3.23-29, 누가복음 8.26-39]

구약성서 이사야서는 66장에 이르는 방대한 책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중심으로 유배 전, 유배 중 그리고 유배 후의 세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1-39 장은 기원전 8세기 유다의 멸망 전에 선포된 말씀으로, 당시의 강대국은 아시리아였습니다. 40-55장은 기원전 6세기 후반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선포된 말씀으로, 39장과 40장 사이에는 15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56-66장은 유다가 5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선포된 말씀으로, 55장과 56장 사이에도 1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당시 강대국은 페르시아였지요.

이런 이유로 이사야서는 한 예언자의 작품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예언자의 선포를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오랜 시간과 다양한 상황을 거치면서 이사야서가 풍요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끊임없는 재해석 덕분에 이사야서는 1부, 2부, 3부로 확장되었고, 다시 신약성서를 통해 새롭게 해석되면서 더욱 깊은 층면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지요. 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질문과 성찰에 기초한 이런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고백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들의 하나님 이해는 어떻게 깊어졌을까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했던 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제국에 의해 무너지면서 땅과 성전과 다윗 혈통의 왕을 모두 잃고 유배살이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처럼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 하고 편집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바벨론 유배 생활이 구약성서를 낳은 것이지요.

이번 달 매일성경 본문은 역대상입니다. 역대기 역시 주전 4세기 포로기 이후의 작품으로, 히브리 성서의 제목은 '그 시대의 일들', 헬라어 성서 제목은 '간파한 것들'입니다. 역대기 지혜자는 포로기에 기록한 사무엘과 열왕기 기자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역사의 이면, 다시 말하면 확장된 하나님 이해에 기초한 새로운 지혜 교과서를 쓴 겁니다. 그는 다윗의 인구 조사와 관련한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앞선 사무엘 역사가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겼다고 했습니다.

역대기 지혜자가 하나님을 변호하거나 사탄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기의 천상 회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깨달음이 포로기 이후에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사탄이 창조 세계 밖에서 들어와 세상을 파괴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유배살이를 통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악과 혼돈의 상징인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낮아짐이 도리어 선한 일이 되었다는 고백이지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 바벨론 제국의 거대하고 찬란한 문명을 동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다산과 풍요를 위해 동산에서 제사하고, 무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무덤가에서 살았던 거러사인처럼 말이지요. 예언자는 이렇게 풍요와 다산을 위한 이방 종교의식에 참여한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벌하신다.”**라고 선포한 것이지요.

하지만 예언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내게 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보존해 줄 것이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의 종들이 거기 들어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그들이 허무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지요. 그들은 자연을 창조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희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응원해주신답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미가는 자신의 이름을 따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가까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찬송가 290장도 그것을 멋지게 그려냅니다. 원곡의 후렴 가사는 **“나는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단다.(For you I am praying.)**”라는 주님의 약속을 1인칭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렴을 전체 가사의 문맥을 따라 **“난 널 놓지 않아”**라고 옮겨 보았습니다.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살뜰.